

무역협상 타결 가시권…韓 “빠른속도 조율” 美 “10일내”

베스트 美재무 “한국과 마무리하는 단계…이전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

김용범·김정관·여한구 미국행…APEC정상회의 계기 최종합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의 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스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스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스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ar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베스트 장관은 ‘다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텔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자본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베스트 장관의 언급대로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2개월 반 동안 이어진 후속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에 대해 “(미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면서 “베스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금 지출시 한국내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날 양측에서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다.

한편,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

일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측 ‘키맨’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에 입국해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 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베스트 장관과 만나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총출동한 상태에서 나온 베스트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날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 또는 그 전후에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 듯한 양상이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15일(현지시간)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반발해 출입증을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집을 쫓겨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美언론, 국방부 보도통제 반발 출입증 반납 기자실 비워

‘허락받은 내용만 보도’ 지침 거절

폭스 등 보수 언론도 대부분 거부

미국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거부 입장을 밝힌 국방부 담당 기자들이 출입증을 집단적으로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을 퇴거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

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 보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2025년 10월15일 오늘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출입증 반납 대열에 동참했다.

AFP, 알자지라, BBC, 연합뉴스 등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국 언론 다수도 출입증을 반납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온 폭스 뉴스를 포함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리플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도 서약서 서명을 거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시한인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연합뉴스

유엔, 5개월 전 韓에 경고…“동남아 범죄단지 조치 필요”

5월 OHCHR 특별보고관 3명 공동성명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미 5개월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OHCHR은 지난 5월19일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범죄단지 상황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인권적으로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협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HCHR은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 내용의 사본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명에는 범죄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버텨야 한다”며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로모 삼아 가족에 고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특히, 범죄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성명에 적시됐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조치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즉각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온실가스 연보에서 지난해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3ppm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52% 증가한 수치라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2023-2024년 1년 동안 늘어난 폭도 3.5ppm으로 관측이 시작된 1957년 이래 가장 가파른 연간 증가 폭을 보였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는 1960년대의 정확히 3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액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